



TV속 오리기행

오리들의 무더위 탈출!

SBS 토요특집 출발 모닝와이드(1014회3부) 2011년 7월 30일 방송분



개그우먼 강남영이 뒀다! 오리들의 무더위 탈출!

유난히도 길고 지루한 장마, 또 장마가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폭염에 폭우까지~! 사람도 지치게 하는 올여름 이상기온으로 더욱 힘들어 하는 녀석들이 있으니, 바로 오리! 무더위에 지친 오리들을 구하기 위해 개그우먼 강남영이 뒀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찾아오면 더위를 많이 타는 오리들이 자칫 폐사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오리농가에서는 여름을 대비한 갖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놓는데... 더위에 좋다는 삼백초와 비타민 영양제를 사료에 섞어 먹이는 것은 기본! 여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오리들에게 시원한 지하수 샤워부터~ 습도를 낮춰주기 위해 잘 말린 왕겨 깔아주기까지~ 천생일꾼 강남영이도 두 손 두 발을 들만큼 여름철 오리농가에는 할 일이 많아도 너무 많다! 급기야 더위를 단번에 날려줄 비장의 무기 얼음덩이까지 들고 나르는 남영! 오리들의 체감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리고 온 남영이의 활약, 기대하시라!



【박상도 아나운서】 토요 특집 출발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요즘 만나면 하는 인사가 “별일 없으셨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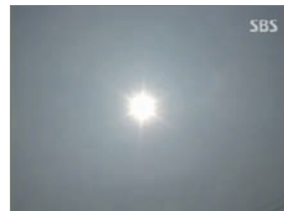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해가 갈수록 날씨가 더 사나워지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 아나운서】 그러게 말입니다. 남부지방은 불볕더위 때문에 몸살을 앓았다는데요. 불볕더위 때문에 힘들어 한 곳이 또 있다고 합니다. 강남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강남영 개그우먼】 고온다습한 날씨는 사람들만 지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오리들도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었는데요. 이럴 때 가족들이 질병에 걸리기 쉽잖아요. 축산농가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오리농장으로 지금부터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태양아래 웬 남영오리!



【강남영 개그우먼】 오리! 오리! 잠깐 입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찌는 듯이 더운데요.

24시간 털옷을 입고 있는 우리 오리 친구들은 얼마나 덥겠습니까.



발끝까지 느껴지는 무더위!

오리발로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겠습니다!

【강남영 개그우먼】 오리들까지 힘들게 하는 나쁜 무더위! 이야~~ 더위야 물러가라. 남영이가 나가신대! 으랏차차! 무더위를 뺄 날려버렸습니다. 무더위여 안녕~~!!



무더위에 지친 오리들을 위해 남영이가 뜬 곳은요 바로 충침남도 천안이었습니다.



【박영배 오리농장주】 잘 찾아 오셨네요?

【강남영 개그우먼】 오리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사방

에서 들리는 거 같거든요. 어느 쪽에 있나요?

【박영배 오리농장주】 네.

저안에 들어가면 우리 오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 일이 많아서 빨리 일을 해야 하니까 얼른 오세요.



【강남영 개그우먼】 어? 오리에요.

【박영배 오리농장주】 오늘 촬영한다 그러니까 오리들도 기뻐서 뛰어나왔나 봐요.

아우~마중까지 나온 녀석들 남영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농장 일을 하기 위해 남영이도 변신을 하고요!

【박영배 오리농장주】 아 니 리포터님 할 일이 태산같은데 하루종일 변신

하고 있는거예요? 빨리 빨리 하고 얼른 사료 줘야 하는데.



장화 신은 버선발로 급히 따라간 곳은요 바로 오리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곳이었습니

○
TV속 오리기행

오리들의 무더위 탈출!



그런데 사료를 주신다더니 다른 것이 잔뜩 있어요.

【박영배 오리농장주】 이건 우리 집에서만 먹이는 삼백초! 우선 가장 여름 나기 좋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요.

사람 몸에도 좋다는 삼백초, 여기에서는 오리들 차지였 습니다.

삼백초 분말을 사료에 섞어 오리들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오리의 즐거운 식사시간!

정신없이 달려드는 이 녀석들! 어쩌나 잘먹는지 보는 남 영이가 다 배가 부르더라고요.



【박영배 오리농장주】 저는 오랫동안 오리를 기르다 보 니까 오리들 표정만 보면 아는데 덩대! 아니면 기분이 무지 좋대! 또는 애인이있다! 이런 표정들이 있어요!



【강남영 개그우먼】 에이 말도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똑같은데.



오리에게 표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확인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요리보고 저리봐도 그녀석이 뭐 그냥 그녀석이고 이쁘기만한 오리였습니다.



【강남영 개그우먼】 잘 모르겠는데요.

【박영배 오리농장주】 적이 나타났다. 그럴 때는 이렇 게 경계하는 표정을 짓고요. 사람들이 덩고 짜증날 때 는요. 콧구멍을 벌름벌름 거리고 땀을 흘리잖아요. 오

리들도 완전히 땀칠이 흥내를 뱉니다.



그리고보니 작진을 경계하는 녀석부터 더위에 지쳐버린 녀석까지 오리들의 표정이 다양합니다.



【박영배 오리농장주】 오리들이 더워서 헉헉거리고 오리표정에 짜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가장 애로점이지요.



사람도 지치게 하는 무더위에 오리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오리농장에는 선풍기며 환풍기 설치하는 기본이구요. 오리들이 먹는 물 하나도 예사물이 아니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데!

【강남영 개그우먼】 아우 시원해~ 아우 차가워~

한여름에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지하수! 이 지하수가 빛을 발하는 시간! 바로 오리들의 샤워 시간입니다.



【강남영 개그우먼】 진짜 시원해요~ 와우!

【박영배 오리농장주】 냉장고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지요?

【강남영 개그우먼】 실내온도가 한 2~3도는 떨어진 느낌이에요.



시원해서 신난 오리들!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박영배 오리농장주】 지금까지는 전초전이고요. 여름나기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
TV속 오리기행

오리들의 무더위 탈출!



시원한 지하수 샤워로도
모자라서 어르신이 꺼내
든 건 바로~바로~바로?
그렇습니다. 오리들을 위

한 특별한 선물! 얼음!



【강남영 개그우먼】 정말
사장님의 오리가 되고 싶
어요. 더우면 이렇게 얼
음을 갖다주시죠. 맛있는거

주시죠.



가장 무더운 날에만 등장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데요.

오리들이 별폐처럼 모여드는데요.

오리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오리들은 신이 났지만 계속 남아있는 일 때문에 저 남영
이는 실튼이 없었습니다. 얼음으로 축축해진 바닥에 새
이불을 깔아줬는데요. 사람도 눅눅한 곳에서 자기 싫잖
아요, 왕겨까지 새로 깔아주자 오리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어서 누워버렸습니다. 그때 다가오신
어르신!

▣박영배 오리농장주얼마나 더위? 오늘 일도 열심히 하
시고 그랫는데 지친 몸을 이렇게(남영 머리위에 얼음을
얹고) 한번 식히고 이제 우리 점심 먹읍시다.



고단한 저에게도 특별 선물이 있었습니다.



【강남영 개그우먼】 세상에 일을 그렇게 시키시더니 이런 반전이 있었네요.

【농장사람 1】 제가 구워드릴게요.

【강남영 개그우먼】 정말 경건한 소리는 제가 접하고 싶습니다. 이소리 와우~ 언제 피곤했나, 언제 힘들었나 싹 잊었습니다.



매콤하게 생긴 오리주물럭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오리백숙! 담백한 맛이 일품인 백숙의 오리다리를 살점 하나 남김없이 다 뜯어 먹었습니다.

오리다리 이렇게 잘 뜯는 여자 본적 있으십니까?

【박영배 오리농장주】 그 큰놈을 순식간에 접수셨어?

【강남영 개그우먼】 저 또 놀러와도 될까요?



【박영배 오리농장주】 그럼요. 늘 맛있는 거 대접해드릴게요. 우리 옆에 방 하나 드릴까요?

【강남영 개그우먼】 감사합니다.



【박은경 아나운서】 정말 오리농가 대단하시네요. 더위에 지친 오리들을 위해서 지하 암반수부터 얼음까지!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강남영 개그우먼】 그렇습니다. 정작 오리농장주 분들이 쉬는 공간에는요, 변변한 냉방시설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리들을 더 시원하게 해줄까 하는 생각 뿐이셨는데요. 그런 노력 덕분에 우리 오리들이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닐까요?



【박상도 아나운서】 오리고기 맛있는 게 이유가 있었네요.